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소영(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현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이상수(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B광역시에 소재한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적응 청소년 180명과 학교를 자퇴 또는 퇴학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독립표본 t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비교한 결과, 학교 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높았다. 둘째,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학교 적응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셋째, 학교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의 하위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인식 및 관리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을 분석한 결과, 감사하기, 관계성, 소통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학교적응, 학교부적응,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

1. 서론

다양한 이유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 또는 퇴학의 형식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기본통계(2016)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3A2067778)

** 제1저자: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oolee@pusan.ac.kr)

학교 14,998명(0.6%), 중학교 8,924명(0.6%), 고등학교 23,741명(1.4%)이며,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만 4959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3%를 차지한다.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이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송지은(1999)은 학교 적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학교생활 환경과 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문제로 인해 자신감이 낮고 소극적이며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이명진, 봉미미, 2013),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에도 불안, 우울, 좌절 등을 경험한다(최미경, 이서영, 2015).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과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할수록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났다(이병훈, 2017).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은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또한 가정, 학교, 친구, 진로 등의 위험요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김미숙, 2014). 그러나, 청소년의 적응 및 부적응의 문제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완충시켜주는 요인에 의해서도 이해되어야 하며,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사회적 기술 등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였다(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김택호, 김재환, 2004).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부적응과 관련이 높다.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말한다(Elias, 2009)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사람은 폭력, 왕따, 약물남용, 학업중단과 같은 부정적 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공감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과 협상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할 때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Elias et al, 1997; Greenberg et al, 2003).

회복탄력성은 중요하고 위협적인 역경이 닦쳤을 때 개인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연희, 정재은, 2012). 개인의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 요인과 사회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과 타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나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동시에 장차 다가올 스트레스나 역경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나다(Masten, 2001). 즉,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이 학교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을 비교하고, 학교 적응 여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정서역량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둘째, 회복탄력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셋째,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의 요인은 무엇인가?
- 넷째,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적응과 부적응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심리적·신체적 균형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장호성(1987)은 학교의 상황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지적·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적응이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또한, 부적응 행동은 주어진 문제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상 반응 또는 적응 장애를 말한다(한상철, 1998).

학교부적응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시작하여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고 학업중단의 원인을 학교 부적응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심의보, 2015; 박래영, 2005; 이규미, 2004).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은 학교 내의 다양한 요소, 즉 학교규칙, 친구, 수업에 대한 부적응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단결석, 무단조퇴 등 학교를 이탈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이병환, 강대구, 2014). 즉, 학교 부적응은 개인의 욕구와 기대가 학교가 요구하는 학습, 규범, 관계 차원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특성이 나타나는 부조화 상태이며, 학교 부적응 청소년은 이러한 부조화 상태로 인해 학교를 자퇴나 퇴학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은 개인, 가정, 학교 등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로는 낮은 지능, 까다로운 기질, 낮은 자존감, 왜곡된 부모와의 상호작용, 열악한 주변 환경 등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있다(홍은숙, 2006). 이러한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나 주위 사람들의 지지, 효능감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김택호, 김재환, 2004). 또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믿음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정서역량의 의미와 영향

사회정서역량은 자기 삶의 사회적 및 정서적 측면을 이해, 관리 및 표현하는 능력으로 학습, 관계 형성,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 및 복잡한 성장 요구에 적응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성공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Elias et al., 1997). 또한 사회정서역량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다루는 효과적인 기술을 기르게 된다(Greenberg, et al, 2003).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제를 통해 자기 주변의 환경 및 사람들과 조화롭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서역량은 ‘자기-타인’ 차원과 ‘인식-관리’차원에 따라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Zins(2004)은 사회정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기인식(Self-awareness)이다. 자신의 정서, 신념, 흥미, 가치관,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와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둘째, 자기관리(Self-management)이다.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개인적 목표와 학업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개인 간 차이와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고, 행동 규범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가족·학교·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자원과 지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넷째,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이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협력하고, 대인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부적절한 사회

적 압력에 저항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이다.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 안전, 윤리기준, 사회규범, 자신과 타인의 안녕에 근거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사회정서역량은 정학의 감소, 공격행동의 감소, 학교생활과 교실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의 증가 등 학교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학업수행 및 대인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errell & Gueldner, 2011). 또한,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의 증진에 필요한 태도, 정서, 행동, 인지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 학업적 성공을 하기 위해 학습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Elias et al., 1997).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 부모, 교사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으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고(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사회정서역량의 향상은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의식과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정서역량은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회복탄력성의 의미와 영향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의 향상, 즉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더한 용어이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즉,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속한 상황 속에서 위협이나 위기, 긴장상황에 처했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여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능력이며,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등의 연구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 내적 특성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이다(이해리, 조한익, 2005).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은 첫째,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을 포함하는 통제성, 둘째,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을 포함하는 낙관성, 셋째,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을 포함하는 사회성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인들을 설명하였다. 회복탄력성의 9가지 하위요인은 <표 1>과 같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정서를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 자아낙관성이 학교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이신숙, 2013). 또한 청소년이 우울,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역량인 탄력성이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이러한 영향들은 청소년기의 내·외적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표 1> 회복탄력성의 요인

요인	하위요인	주요내용
통제성	원인분석력	내게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감정통제력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여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
	충동통제력	미래의 성공과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긍정성	감사하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 것
	생활만족도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과정
	낙관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미래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역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사회성	관계성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
	커뮤니케이션능력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능력
	공감능력	다른 사람의 심리상태나 감정 등 정서상태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학교 부적응 학생의 구분을 위해 학교 부적응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교칙위반, 흡연, 교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 또는 퇴학한 부산시내 소재하는 4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으며 학교 적응의 경우는 부산 시내 소재하는 일반 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하고 263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2> 연구 대상 분포

	적응 학생	부적응 학생	전체
남	74	48	122
여	105	36	141
전체	179	84	263

2. 측정도구

가. 사회정서역량 검사지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Coryn, Spybrook, Evergreen, Blinkiewicz(2009)가 개발하고 송윤정(2015)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전문가 2인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 대상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기인식 및 관리’, ‘타인인식 및 관리’, ‘의사결정’의 하위 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의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61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 신뢰도와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정서역량 검사 척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인식 및 관리	14,15,16,17,18,19,20	7	.896
타인인식 및 관리	7,8,9,10,11,12,13	7	.907
의사결정	1,2,3,4,5,6	6	.899
전체		20	.961

나. 회복탄력성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YKRQ-27)를 본 연구 대상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회복탄력성의 3개 영역인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에 따른 9가지 하위요인인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공감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형태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표 4>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원인분석력	1,2,3	3	.865
감정통제력	4,5,6	3	.825
충동통제력	7,8,9 *	3	.616
감사하기	10 *, 11, 12 *	3	.824
생활만족도	13, 14, 15	3	.851
낙관성	16, 17, 18	3	.804
관계성	19 *, 20 *, 21 *	3	.895
소통능력	22, 23, 24	3	.787
공감능력	25, 26, 27	3	.884
전체		27	.951

* 역문항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첫째, 기존의 개발된 사회정서역량 검사지와 회복탄력성 검사지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두 집단 간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 적응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비교

<표 5>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학생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인식 및 관리	적응	171	4.10	.6283	4.492**
	부적응	82	3.70	.6981	
타인인식 및 관리	적응	171	3.91	.7042	3.014**
	부적응	83	3.62	.7456	
의사결정	적응	172	3.92	.6938	3.324***
	부적응	83	3.60	.7929	
사회정서역량	적응	168	3.99	.6355	3.930***
	부적응	82	3.64	.6965	

** p<.01, *** p<.001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학교 적응 청소년의 평균은 3.9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평균은 3.64이었으며, 두 집단 간 사회정서역량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4.492, p<.01$). 즉, 사회정서역량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가능성은 높고 사회정서역량이 낮을수록 학교 부적응의 가능성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의 하위역량인 자기인식 및 관리($t=4.492, p<.01$), 타인인식 및 관리($t=3.014, p<.001$), 의사결정($t=3.324,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 적응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줄 알며,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비교

<표 6>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학생	N	평균	표준편차	t
원인분석력	적응	173	3.93	.7531	3.296**
	부적응	83	3.60	.7444	
감정통제력	적응	172	3.86	.7422	3.509**
	부적응	83	3.50	.8088	
충동통제력	적응	171	3.58	.7692	3.560***
	부적응	80	3.23	.6784	
감사하기	적응	171	4.00	.7909	5.132***
	부적응	83	3.43	.8831	
생활만족도	적응	171	3.79	.8370	3.617***
	부적응	83	3.39	.8305	
낙관성	적응	170	3.99	.7636	3.419**
	부적응	83	3.63	.8538	
관계성	적응	171	4.25	.7984	4.998***
	부적응	83	3.64	1.1150	
공감능력	적응	173	3.69	.8103	2.704**
	부적응	83	3.53	.7775	
회복탄력성	적응	172	3.90	.7745	2.480**
	부적응	83	3.62	.8299	

** p<.01, *** p<.001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와 같다.

학교 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학교 적응 청소년의 평균은 3.90,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평균은 3.62이었으며, 두 집단 간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480, p<.01$).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의 가능성은 높고 학교 부적응의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역량인 소통능력을 제외한 원인분석력($t=3.296, p<.01$), 감정통제력($t=3.509, p<.01$), 충동통제력($t=3.560, p<.001$), 감사하기($t=5.132, p<.001$), 생활만족도($t=3.617, p<.001$), 낙관성($t=3.419, p<.01$), 관계성($t=4.998, p<.001$), 공감능력($t=2.704, p<.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교 적응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적응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 청소년 보다 자신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에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정서역량이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7> 사회정서역량 모형검정 및 학교 적응 여부 분류의 정확도

		예측치			정확도
		적응	부적응	전체	
관찰치	적응	24	58	82	29.3%
	부적응	15	153	168	91.1%
	전체	39	211	250	70.8%

$-2LL=293.498, \chi^2(\text{절편모형}-\text{이론모형})=22.878(df=3, p=.00), Nagelkerke R^2=.122$

자기인식 및 관리, 타인인식 및 관리, 의사결정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 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의 $-2LL$ 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은 χ^2 값은 22.878,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서역량에 의해 학교 적응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학교 적응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70.8%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학교 적응 여부에 대한 사회정서역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자기 인식 및 관리	-1.167	.379	9.472	1	.002	.311
상수	2.929	.877	11.164	1	.001	18.714

학교 적응 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기인식 및 관리(Wald=9.472, p=.002)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학교 적응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정서역량과 비교하여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인식과 관리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회복탄력성이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9> 회복탄력성 모형검정 및 학교 적응 여부 분류의 정확도

		예측치			정확도
		적응	부적응	전체	
관찰치	적응	34	46	80	42.5%
	부적응	16	146	162	90.1%
	전체	50	192	242	74.4%

-2LL=270.448, χ^2 (절편모형-이론모형)=36.692(df=9, p=.00), Nagelkerke R^2 =.196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소통능력,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분류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의 -2LL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은 χ^2 값은 36.692,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이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에 의해 학교 적응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학교 적응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74.4%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0> 학교 적응 여부에 대한 회복탄력성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감사하기	.541	.245	4.873	1	.027	1.718
관계성	.434	.198	4.824	1	.028	1.544
소통능력	-.772	.307	6.317	1	.012	.462
상수	-3.106	.936	11.04	1	.001	.045

학교 적응 여부에 대한 회복탄력성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감사하기(Wald=4.873, p=.027), 관계성(Wald=.434, p=.028), 소

통능력(Wald=6.317, $p=.012$)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학교 적응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이 학교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들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대화 기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이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과 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들 중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학교 부적응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교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 및 관리가 그리고 회복탄력성 중 감사하기, 관계성, 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 청소년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집단 간 사회정서역량 차이 분석에서는 전체 사회정서역량을 포함한 자기인식 및 관리, 타인인식 및 관리, 관계 기술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은 학교 규칙, 친구, 수업 등과 같은 학교 내 다양한 요소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이병환, 강대구, 2014; 한상철, 1998)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하고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정서역량은 학교 부적응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소속감을 갖게 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Durlak et al., 2011; Merrell & Gueldner, 2011), 정신적 건강과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권영웅, 2011; 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예방적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조절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교생활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 청소년과 부적응 청소년 집단 간 회복탄력성 차이 분석에서는 전체 회복탄력성을 포함하여 소통능력을 제외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공감능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충동 통제, 친사회적 태도, 긍정적 정서와 같

은 개인 내적 특성과 타인의 지지와 믿음과 같은 외적 보호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역경에도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기로 돕는 과정적 능력이다(이해리, 조한익, 2005). 이런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상황에서 왜곡된 해석보다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충동과 같은 부정적 감정 통제를 통해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청소년들에게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 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인 중에서 학교 적응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인식 및 관리였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자기 효능감과 낙관성을 형성하고 스트레스나 충동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usenbury & Weissberg, 2017). 이는 학교 중도탈락생이 재학생보다 자아 존중감과 낙관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배영태, 2003)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다른 사회정서역량들 보다 자기인식과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량들 보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적응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복탄력성 하위요인 중 감사하기, 관계성, 소통능력이 학교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모와 친구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또한 감사하기는 긍정적 정서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일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주환, 2011).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하위요인들과 비교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뛰어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정서역량이나 회복탄력성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길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을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통합교육이나 생활교육과 연결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정과 지역사회 등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정서역량과 회복탄력성 하위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학교 부적응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길러줄 필요가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학교에서 퇴출된 전형적인 부적응 학생들과 일반 학교 학생들을 비교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내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학교 내 학생들의 부적응 진단과 예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웅 (2011).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사회 정서적 성과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2014). 학교부적응 청소년 유형과 부적응 완화요인. **교육정책연구**, 12(1), 119-154.
- 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과 공동체의식 개선에 주는 의미 탐색. **교육방법연구** 27(4), 511-534.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하우스.
- 김중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태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청소년의 탄력성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상담학연구**, 6(2), 515-529.
- 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적응 - 자존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273-298.
- 교육기본통계 (2017). 4-6 학업중단율. 22.
- 박래영 (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 실태, 정책 변화양상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7(2), 5-21.
- 배영태 (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서동식 (2002).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심의보 (2015). 학교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은 (1999). 학교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5(1), 27-40.
- 이규미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 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41.
- 이명진, 봉미미 (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와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희, 정재은 (201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245-268.
- 이병훈 (2017). 고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요인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환, 강대구 (201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0(3), 125-148.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42(12), 161-206.
- 장호성 (1987).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학열, 최중진, 김청송 (2015). 청소년위험행동에 대한 취약성과 탄력성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463-486.
- 최미경, 이서영 (2015). 공감중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한 학교부적응청소년의 공감능력, 학교폭력인식과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1), 75-96.
- 한상철 (1998). 청소년기의 위험행동: 교우관계 및 가족역할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5(3), 45-62.
- 황인희 (2007). 정서인식의 정도와 정서조절양식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Dusenbury, L., & Weissberg, R. P. (2017). "Social Emotional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 Preparation for Success." Edna Bennett Pierce Prevention Research Cente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Elias, M. J., Zins, J. E., Weissberg, R. P., Frey K. S., Greenberg, M. T., Haynes, N. M., Kessler, R., Schwab-Stone, M. E., & Shiver, T. P. (1997). *Promo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Guidelines for educator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brien, M. T., Zins, J. E., Fredericks, L., Resnik, H., et al.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58, 466-474.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 227-238.

Masten, A. S., & Powell, J. L. (2003). *A resilience frame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CB: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rrell, K. W., & Gueldner, B. A. (2010).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Promo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신현숙 역 (2011). **사회정서학습: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촉진**. 서울: 과학사

Zins, J., Weissberg, R., Wang, M., & Walberg, H. J.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논문 접수: 2018년 7월 31일

논문 심사: 2018년 8월 21일

게재 승인: 2018년 9월 21일

<ABSTRACT>

Effects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Kim, SoYoung(Haeundae youth counseling center)

Kim, Hyunji(Pusan National University)

Lee, Sangsoo(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We conducted a survey on 180 students from three school and 100 adolescents dropped out of school or expelled from school in Korean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emotional competence of school-adjusted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resilience of school-adjusted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Third, the self-awareness and management, sub-factor of social emotional compete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Fourth, Third, the appreciation, relationships, and ability to communicate, sub-factor of resilie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orientation of what abilities students need to educate to adapt to school.

★ **Key words:** school adjustment, school maladjustment, social-emotional competence, resilience